

2018. 4. 9. [월] 언론보도

경인방송

2018-04-08 00:00

올해 첫 DMZ 자전거투어 29일 개최...선착순 접수



<자료사진=수원시 제공>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는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 개장을 기념해 'DMZ 자전거투어'를 오는 29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는 민통선 내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로 이어지는 총연장 17.2km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고 DMZ 사진전, 엽서쓰기 등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을 통해 내일(9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kds@ifm.kr

국민일보

2018년 4월 9일 월요일 013
면 사회

오는 29일 DMZ 자전거투어 개최

경기도는 오는 29일 'DMZ 자전거투어'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코스는 민통선 내 임진강변 군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 총 17.2km(초급 13km)다. 지난달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가 개장한 것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DMZ 사진전과 엽서쓰기 등 이벤트도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다. 참가 방법은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을 통해 20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경인일보

2018년 4월 9일 월요일 010면 사회

자연의 寶庫 '쌍쌍'

DMZ 자전거투어

경기도, 29일 임진각일대

경기도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DMZ 자전거투어' 행사를 오는 29일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개최한다.

대회는 민통선내 임진강변 군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으로 총 길이는 17.2km(초급 13.0km)다. 1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9~20일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3천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 현장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대회는 지난달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를 개장한 것을 기념해 DMZ 사진전, 엽서 쓰기 등 이벤트도 진행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도 관계자는 "DMZ 자전거투어는 남북 분단으로 보존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경험할 기회"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10월 28일 한 차례 더 DMZ 자전거투어 행사를 열 방침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사를 주관하는 경기관광공사 DMZ관광사업팀(031-956-8306~7)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DMZ 자전거투어’ 29일 열린다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 개장 기념

경기도는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 개장 기념 ‘DMZ 자전거투어’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DMZ 자전거투어’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DMZ 일원을 자전거로 달리며, DMZ의 역사·생태적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올해 3월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가 개장한 것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DMZ 사진전과 엽서쓰기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코스는 민통선 내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으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된다. 총 길이는 17.2km(초급 13km)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도 관계자는 “DMZ 자전거투어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보존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며 자전거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DMZ 행사와 연계해 경기도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DMZ 자전거투어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하반기 행사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DMZ 관광사업팀(031-956-83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경기신문

DMZ 아름다운 자연 느끼며 두바퀴의 자유

29일 임진각서 자전거투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DMZ 자전거 투어’ 행사가 오는 29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올 3월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 개장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DMZ 사진전, 엽서쓰기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코스는 민통선 내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으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된다. 총 길이는 17.2km(초급 13km)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9~20일 경기관광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3천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 현장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박신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 자전거투어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보존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며 자전거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DMZ 행사와 연계해 도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기관광공사 DMZ관광사업팀 (☎031-956-8306~7)

/김장선기자 kjs76@